

□ 고성군생활체육회 제7대 홍순흥 회장

“예산배분 형평성 유지·민주적 운영 기틀 마련”

불필요한 요식행위 간소화

“생활체육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앞으로 생활체육 동호인들과 힘을 모아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지난 18일 실시된 제7대 고성군생활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홍순흥 회장은 “각 종목 연합회장들이 저를 선택해준 것은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4년의 임기 동안 고성군의 생활체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특히 종목별 연합회장과 지역 이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생활체육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배분에서도 형평성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임 회장 당선 후 지난 20일 개막한 제1회 고성군 생활야구 대회에서 축사를 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그는 축사를 장황하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마무리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도 단위 대회든 전국 대회든 행사를 하다보면 축사나 격려사 등이 너무 많아 선수들의 진을 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대회 때 불필요한 요식행위를 간소화하고, 선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홍 회장은 초등학교 때 잠시 배구 선수 생활을 하다 중학교 때 농구로 종목을 바꿨으며, 중 3학년부턴 대학 때까지는 야구선수로 뛰는 등 여러 종목에서 선수생활을 했다. 야구선수 시절에는 유격수와 3번 타자로 활약

했다.

지난 1969년 천진초등학교 교사로 발령받아 고성군과 인연을 맺은 그는 체육지도교사로 소년체전과 도민체전에 출전해 지역의 명예를 드높였으며, 제자들도 많이 배출했다. 이종국 축구 국제심판은 거성초교 재직 당시 육상선수였다.

지난 2009년 양구 해안초교장을 끝으로 교직에서 정년 퇴임한 홍회장은 “남은 여생은 오로지 고성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현재 군 배구연합회장과 야구연합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으며, 생활체육회 가맹 단체는 아니지만 60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구성된 ‘다지불수성탁구회’ 사무국장도 맡고 있다.

최광호 기자



고성중고 총동문회 제20대 정달수 회장

“따뜻한 동문회 만들겠다”

고성중고 총동문회 제 20대 회장으로 정달수(54세, 사진)씨가 추대됐다.

정달수 신임 회장은 “동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역대 회장님들의 많은 노력과 헌신을 이어 받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정 회장은 “우선 흐트러져 있는 동문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 화합을 이끄는 데 힘쓰겠다”며 “동문들 서로에게 사랑으로 정을 나눌수 있는 따뜻한 동문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기수별 동문들을 방문해 격려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최고의 동문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다.

정 회장은 “동문회 홍보부족으로 많은 동문들이 함께 하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다”며 “앞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해 모든 동문들이 화합하고 단결 할 수 있는 총동문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회장은 죽왕면 구성리 출신으로 고성중(17회)과 고성고(16회)를 졸업했다. 대한 교원공제회 설악지점 근무, 18대 총동문회 장학국장을 역임했다.

현재 고성군 신용협동조합 거진지점장을 맡고 있다.

가족으로는 방경숙씨와 1남 1녀를 두고 있다.

박승근 기자



금강고성꾸지뽕연구회 함종성 초대 회장

“상품가치 뛰어나 농가소득 도움”

지난 17일 창립한 금강고성꾸지뽕연구회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함종성씨(58세, 사진)는 요즘 사업구상에 한창이다.

함 회장은 2009년부터 4천평의 부지에 꾸지뽕 묘목 8천주를 심고, 3년째 되는 해인 올해 첫 수확의 꿈에 부풀어 있다.

함 회장은 “처음에는 힘이 들고 여러 어려움이 많아 포기 하고 싶은 생각도 많았지만, 시작을 하면 끝까지 가는 성격 탓에 한번 해보자는 의지가 있어서 올해 첫 수확의 꿈을 갖게 됐다”고 했다.

그는 “아직 꾸지뽕을 아는 이가 그리 많지가 않아 홍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일반인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으로 개발이 된다면 상품가치가 뛰어나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고성군의 꾸지뽕 재배농가는 25가구이며, 올해부터 15가구가 신규로 재배를 위해 구슬땀을 흘릴 예정이다.

함 회장은 “고성군에 묘목장이 없어 묘목 생산 농가를 희망 받고 있다”며 “씨를 뿌려서 묘목까지가 1년이 소요돼 대량 생산만 된다면 고성에서도 새로운 농가 소득을 올릴수 있는 장이 열린다”고 했다.

또 “앞으로 고성꾸지뽕을 활성화 해 해외 판로를 개척할 계획”이라며 “특히 액기스를 만들어 약품회사나 식품회사에 원료를 납품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함 회장은 “꾸지뽕 재배농가들에게 혜택



을 부여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판로 개척을 위해 고성군과 밀접한 유대 관계를 유지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다.

꾸지뽕나무는 한국과 중국에서 자생하는 뽕나무과 꾸지뽕 나무속에 속하는 낙엽성 관목으로 굵가시나무, 활뽕나무, 자살, 저실, 야매자, 황상 등의 이름으로 불리며 황해도 이남에서 자생한다.

나무줄기에 가시가 돋아 있고 잎이 타원형이며 두껍고 솜털이 있으며 꾸지뽕잎을 떼면 하얗고 진한 액체가 배출돼 병충해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나무이다.

함 회장은 토성면 교암 출신으로 동광고(14회)를 졸업했다. 현재 토성영농조합법인 대표도 맡고 있으며, 대봉 감나무도 재배하는 전형적인 농사꾼이다.

박승근 기자

영동OA사무기

- 디지털복사기 □소모품판매
- 잉크젯·레이저 프린터 □팩스
- 복합기렌탈 □LCD프로젝터

681-7607, 010-3179-7607